

그리스도理解의 一考察

吳 銀 洙*

- I. 序 論
- II. 新約聖書의 그리스도像
- III. 史的考察
- IV. 現代의 그리스도理解
- V. 結 論

I. 序 論

예수 그리스도는 果然 누구냐? 라는 물음은 그의 生存時부터(1) 오늘에 이르기까지 無數히 反復되었고 앞으로 이 물음은 繼續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世代를 通하여 自己를 解釋하게 했으며 自己와 人格的 關係를 갖게끔 한 特異한 분이다. E. Brunner의 表現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人格的 決斷을 갖도록 하는 분이다.(2) 그가 文化, 歷史, 倫理等 여러 面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으며 사람들의 삶에 意味와 目的을 주고 그리스도人들의 信仰의 對象이 되었다는 點에서도 그의 人格은 完全히 다 說明되어질 수 없는 無限한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藝術, 文學, 哲學, 宗教 等 여러 面으로 多樣하게 그의 人格이 表現되어 왔다. 特히 그의 人格의 意味를 나타내는데 至極히 多樣하게 쓰여진 名稱들(3)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의 깊고 넓은 人格의 意味를 充分히 表現할 수 없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불리워진 이름들이다.(4) 그러나 우리가 記憶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人格은 그에 對한 모든 記錄과 多樣한 表現들 그리고 많은 說明들을 呑한것 보다 더 크고 그 以上の 것이라는 事實이다. 哲學, 思想, 一般宗教에서와는 달리 基督教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人格 그 自體가 決定的으로 重要的 것이다. 따라서 至今에 이르기까지 많은 敎理的 그리스도 論爭이 繼續되었으며 相互 見解를 달리하는 境遇가 많았다. 그 顯著했던 몇가지 例를 들면 첫째, 四

* 校牧·敎授

1. Matt. 16:13-16, Mk 8:27-29 John: 18:37-38
2. E. Brunner: Man in Revolt. Lutter worth press. London 1953, p. 268-269
3. R.H. Fuller: The Foundations of the New Testament Christology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5
Vincent Taylor: the names of Jesus. macmillan and Co., LTD New York 1954 50餘稱號를 分類說明했음
4. O.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T. Trans. by S.C. Guthrie and C.A.M. Hall, the westminster Prers. Philadelphia 1959, p. 8-9

世紀에서 六世紀까지 繼續되었던 그리스도의 人格에 對한 敎理論爭⁽⁵⁾ 十九世紀의 “歷史的 예수” 問題⁽⁶⁾ 二十世紀에 이르러서 第一次 世界大戰 直後에 A. Schweitzer에 依하여 새로운 問題로 提示되었던 終末論的인 그리스도 理解⁽⁷⁾ 그리고 第二次 世界大戰 直後에는 Rudolf Bultmann에 依하여 “非神話化”라는 새로운 그리스도 理解가 提示되어져서 이것이 現代神學界의 最大의 關心事로서 神學論爭의 뜻을 띄우게 되었다.⁽⁸⁾ 그러나 이 問題는 Bultmann의 弟子들에 依하여 다시 새로운 局面으로 止揚해가고 있는 때를 같이 해서 未來에 強調點을 두는 所望으로서의 그리스도 理解로 關心이 옮겨지게 되고 특히 Pannenberg에 依하여 復活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 理解가 提示되어지고 있다.⁽⁹⁾ 이 같은 見地에서 現代는 그리스도 理解를 爲한 黃金時期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人格을 論함에 있어서 筆者는 Nels F. S. Ferr'e가 한 말 卽 權威에만 依存하는 Pythagorean型이나 아무 前提없이 끝없는 眞理探究를 志向해가는 Ionian型보다는 이 兩者의 結合인 Pythagorean-Ionian 型이 더 바람직하다⁽¹⁰⁾는 것을 記憶하면서 傳統과 權威있는 敎說들을 無視함이 없이 現代科學精神에 立脚한 眞理追求⁽¹¹⁾를 堅持할 수 있기를 希望한다. 이같은 意圖에서 먼저 新約聖書 主로 福音書中心의 그리스도像에 깊은 關心을 갖고져 하며 그리스도 理解의 里程表를 삼고져 至極히 簡略한 史的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現代神學者들 中에서 가장 特色있는 그리스도 理解로 생각되는 것을 筆者의 主觀的立場에서 選擇하여 學論코져 한다. 이같은 努力으로 여러가지 그리스도 理解의 특색있는 諸型들을 比較해 볼 수 있는 同時에 長久한 그리스도 理解의 흐름에서 그릇된 理解의 原因과 바른 理解의 要件들을 究明해 보는 것이 우리의 課題인 것이다.

II. 新約聖書의 그리스도像

1. 史的 信憑性 問題

歷史的 예수, 예수의 生涯, 或은 예수의 歷史에 對한 研究에서 예수의 赤裸裸한 모습을 찾

5. O. W. Heick :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Fortress Prs. philadelphia 1965. p. 143-185 p. 187
6. A. Schweitzer :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4, p. 78-157
7. " " op. cit.
8. R. Bultmann : Kerygma and Myth vol. I, II Edited by H. W. Bartsch. Trans, by R. H. Fuller, London, S. P. C. K. 1964.
9. Jurgen moltman : Theology of Hope, Harper and Raw, New york W. Pannenberg : Jesus-God and Man., Trans. by L. Gulkins and D. A. Priebe The westminster Press. 1964
10. S. singh: Christology and Personality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52, p. 9-14
11. O.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 T. p. 1, 3.

는데 失敗했던 原因은 新約聖書와 그 史料들 以外 어떤 史的 記錄으로서 더 有効 適切한 資料를 發見하지 못한데 起因되었다. 이 같은 事實을 Bornkamm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he history of Jesus is to be found neither in the documents and annals of the Roman state nor in Jewish historical writings. World history in general took scarcely any notice of him”⁽¹²⁾ 그리고 新約聖書의 記者들도 科學的 歷史記述家들이 아니었다는데 그 難點이 있는 것이다. 가장 貴重한 史料가 되는 福音書들은 嚴格한 客觀性을 갖는 科學的 記述로서 形成된 文書들이 아니다. 예수의 歷史에 對한 史料로서의 共觀福音書들은 그의 生涯에 對한 分析的 記述이거나 傳記로서의 陳述도 아니다. 그들은 冷徹한 批判精神보다는 救援의 메시지를 傳達한다는 動機가 더 支配的이 있고 嚴正한 事實과 事理를 따지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人格으로부터 받은 強力한 印象에서 모든 그리스도事件들이 갖는 意味에 더 깊은 關心을 갖었던 것이다. 그러나 新約聖書가 信仰告白의 陳述이라는 觀點에서 史的 예수, 或은 예수의 歷史에 對하여 否定的 態度를 取하거나⁽¹³⁾ 冷談하고 無關心한 態度를 取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¹⁴⁾ 왜냐하면 비록 新約聖書의 陳述이 信仰告白의이며 Kerygma라 하더라도 그 記者들이 歷史的 眼目에서 完全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想像해서는 아니되며 예수의 歷史를 傳해준 文獻들과 記者들은 그들의 眼目に 依한 歷史的 事實과 內容들을 그 陳述속에 內包시켰을 것으로 보는 것이 正當한 見解다⁽¹⁵⁾ Bornkamm은 福音書의 예수님의 記事의 歷史性에 對하여 全體的 結合에서 예수의 歷史를 나타낼 뿐만 아니고 福音書의 예수의 斷片의 記事 그 自體속에 예수의 人格과 歷史가 內包되어져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¹⁶⁾ Pannenberg亦是 이같은 點을 強調해서 말하기를 新約聖書의 記事들의 內的統一은 歷史的 資料로서 取해졌을때 더 分明하게 보여지게 되며 記者들이 그때 自己들이 믿었던 바를 表現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 自身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¹⁷⁾ 그러므로 新約聖書의 그리스도像은 歷史的 그리스도의 人格의 強力한 印象과 그 影響力이 記者들에게 그와 같이 陳述하게 했고 그런 形態로 表現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主張해서 옳을 것이다.⁽¹⁸⁾ 그와 同時에 人格的 影響力에서 생겨진 事實은 다른 어떤 歷史的 事實보다 더 重要하고 確實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點에 對하여 Pannenberg는 M. Kähler의 말을 引用해서 “後代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남겨준 人格的 影響은 가장 중요한 양상의

12.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New York Harper, 1960 p. 27

13. Kerygma and Myth Vol I. p. 148

14. E. Brunner: Faith, Hope, Love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p. 24

15. S. Singh: Christology and Personality p. 36

16.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p. 25

17. W. Pannenberg: Jesus-God and Man, p. 25

18. H. R. Mackintosh: The Doctrine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15, p. 6

歷史的 實在에 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人格의 影響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 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이제 남은 또 한가지 重要的 事實은 新約聖書의 Kerygma는 歷史的 예수와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 것이라는 事實이다.⁽²⁰⁾ 왜냐하면 Kerygma는 使徒들의 自意的 創作이 아니었고 어찌까지나 歷史的 예수의 行爲, 敎訓, 業蹟, 生涯等이 그 밑받침이 되어져서 그것이 可能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人格과 事業의 그 唯一性과 特異性은 어떤 信仰의 理解와 解釋과 說明보다도 더 根源的인 것이며 모든 Kerygma의 “Originality”라는 事實을 決코 忘却해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²¹⁾ 이같은 事實들을 考慮할 때 新約聖書의 예수에 對한 證言의 歷史性의 價値를 否定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2. 人間性에서 본 그리스도

福音書記者들이 예수의 人間性을 나타내려고 特別한 努力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그들의 陳述에는 自然스럽게 그의 人間性이 描寫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예수의 肉體와 精神의 發育狀態가 正常的이 었음을 말했다. (Lk. 2 : 40, 52) 그는 굶주렸고(Mtt, 4 : 2) 졸리우며(Mtt, 8 : 24) 疲勞했고 (John 4 : 6) 十字架에서 苦痛과 죽음을 當하여 埋葬되었다. (John : 19 : 30—34) 이같은 記錄은 모두 그의 肉體가 完全히 우리와 同一했음을 말해준 것이다. 그는 사랑스럽게 여겼으며 (Mk 10 : 21) 同情했고 (Mtt, 9 : 36) 怒했으며(Mk 3 : 5) 우셨다. (Mk 11 : 35) 이것은 그의 喜怒哀樂의 感情的面이 우리와 同一했음을 뜻한다. 그는 誘惑을 當했으며 (Mtt, 4 : 1—11) 죽음에 直面하여 苦悶했고 (Mtt, 26 : 37—38) 祈禱를 請했으며(Lk 22 : 39—46) 知的制限性을 認定하여 하나님과 같이 全知全能하지 않음을 自認했다. (Mk 13 : 32) 이것은 心理的, 精神的, 知的 狀態가 非正常的이 아닌 참 人間이 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새벽에 祈禱함을 習慣으로 했으며 (Mk 6 : 35) 하나님께만 善함을 돌리며 (Mk, 10 : 18) 하나님의 뜻을 成就하려고 애써 일했고 (John 4 : 34) 自己의 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求했다. (Mtt, 26 : 39) 이와같이 그의 敬虔, 宗教的인 生活이 正常的인 참 人間이 었다. St. Paul은 “罪있는 肉體의 모습”(Romans 8 : 3)이란 表現을 했고 히브리서 記者는 “그는 모든 점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았다”(Hebrew 2 : 17)라고 했다. 이같이 新約 聖書의 記者들은 예수의 人間性에 對한 見解가 그는 우리와 같은 참 人間이 었다는데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참 人間이 었다는데 바른 理解를 갖고 그 뜻을 알아야 한다. K. Barth는 “하나님이 스스로 人格으로 存在함이 바로 至今 肉身(Fleisch)이 되는 것

19. W. Pannenberg: Jesus-God and Man, p. 22

20. R. H. Fuller: The New Testament in current study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2, p. 52+53

21.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p. 25—26.

이라고 한다. (22) 그리고 肉身(肉身)이 되는 것이 가장 人間과 가깝고 人間과 같이 되는 길이며 이것은 人間的인 本質과 人間實存을 갖는 것을 意味하며 人間的인 責任을 지게됨을 뜻한다. (23) 聖書의 하나님은 觀念的으로 人間과 關係없는 存在가 아니고 舊約의 하나님은 不斷히 人間을 찾으시고 맞나 對話를 갖고 交通하는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人間과 關係하시고 直接 이 歷史안으로 肉身(肉身)이 되어 참 人間이 되시는 그런분 以外에 다른 어떤분 일수는 없는 것이다. (24) Barth는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낮아짐, 弱해짐, 적어짐 희생하심에서 그대로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25)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기 爲하여 人間性을 排除하거나 無人間性, 非人間性이 될 必要는 없는 것이라는데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의 바른 그리스도理解가 있는 것이다. (26)

3. 神性에서 본 그리스도

① 메시아 自意識

이스라엘 傳統的 信仰思想에는 民族的 所望(National Hope)으로서의 메시아 思想이 傳承되었으나 예수 自身은 이같은 메시아 概念을 否定하였으며 새로운 意味를 內包한 贖罪의 메시아 自意識을 갖었던 것으로 新約聖書는 陳述했다. (27) 그리고 本來 Judaism에는 苦難, 죽음, 復活等의 메시아 概念은 갖지 않았으며 예수의 苦難의 메시아 概念은 그의 特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8)

예수의 메시아 自意識에 對한 新約聖書의 證言은 枚舉하기 어려울 程度로 많음으로 여기서는 몇 學者들의 見解만을 學論기로 한다. 예수의 메시아 自意識에 對한 神學的見解는 聖書의 證言을 그대로 받아 드리느냐 않느냐에 따라 深刻한 對立으로 큰 論爭點이 되어 있다.

A. C. McGiffert교수는 예수께서 自身을 많은 사람들의 罪를 爲한 代贖物로 教訓한 것과 自己의 죽음을 言約의 罪와 關聯시킨것 등을 指摘하여 메시아 自意識은 勿論이며 苦難의 중을 自己 自身에 適用했음을 認定했다. (29) R. H. Mackintosh 교수도 예수의 메시아 自意識을 受洗時와 結付 시키는데 關心을 表明하고 “苦難의 중”의 自意識을 그의 죽음과 關聯시켜서 肯

22. Karl Barth: Kierchliche Dogmatik, Evangelischer verlag A. G. Zallikon, Zurich. 1948, p. 165

23. " " Ibid p. 163

24. Karl Barth: Humanity of God John Knox press, Richmonnd Virginia 1960 p. 45—46, 49

25. " " Ibid p. 49

26. " " Ibid. p. 50

27. Matt. 20:28

28. Bultmann Theology of the N. T. London S. C. M press. 1965, p. 31

29. A. C. McGiffer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Apostolic Age,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38, p. 34

定했다. (30) G. B. Stevens 교수 亦是 그리스도의 messiahship을 綿密히 分析 檢討한후 예수
 메시아 自意識을 그의 特異한 使命과 結付시켜서 肯定하고 있다. (31) 그러나 이같은 見解와는
 對照的으로 R. Bultmann 교수는 그의 嚴格한 史學徒로서의 立場을 堅持하여 예수
 自意識에 對한 福音書의 證言들에 對하여 否定的 立場을 取한다. 그에 依하면 예수
 自意識, 苦難의 中 等的 福音書記錄들은 모두 예수 十字架事件 以後에 생겨진 弟子
 들의 信仰에 依한 個人的 確信에 依據된 것으로서 漸次 初代 教會의 見解로 發展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32) Bornkamm 亦是 Bultmann의 見解에 一面 同調하여 福音
 書에 發見되는 많은 메시아 意識이 信仰告白의인 것인 同時에 初代 教會의
 神學으로 認定해야 할 것으로 보나(33)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言行속
 에 메시아的 性格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음을 言及하고 있다(34) 그러나 結局
 그는 本課題는 論理的 教理的 體系에서 解決이 없으며 다만 예수 特異한 存在
 와 그의 復活에 結付시키는 方向에서 끝을 맺고 있다. (35) Pannenberg도 예수
 께서 復活以前에는 自己 自身을 메시아로 呼稱하지도 않았으며 또 弟子나 他者
 에게 메시아로 呼稱하기를 禁한 것으로 보아서 메시아 意識을 復活과 結付
 시키고 있는 것이다. (36) R. H. Fuller은 Bultmann의 見解를 慎重히 檢討하
 면서 救主로서의 메시아 概念이 初代 教會에 依하여 形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歷史의 強力한 影響을 받아서 이루어졌음을 指摘함으로서 예수
 自意識을 間接的으로 認定했다. (37) Cullmann은 人子의 概念이 그러했던 것
 과 같이 “여호와의 苦難의 中”의 概念도 예수 自身에 直接 結付되고 起因되었
 음을 主張하고 있다. (38) 특히 Cullmann은 Bultmann이 自己의 力著 “新約
 神學”에서 예수 終末論的 메세지를 主張하면서 예수 自意識에 對하여
 否定的 態度를 取하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 (39) A. Schweitzer는
 예수 께서 메시아 自意識을 갖지 않았다는 見解에 對하여서 이같은 態度는
 徹頭徹尾한 懷疑主義의 標本이라고 말했다. (40) 우리는 以上の 相異된 여러
 가지 見解들을 살펴본 바 各其 相當한 理由를 갖고 있음을 認定해야 할
 것으로 生覺된다. 그러나 예수 께서 自己를 메시아로 自稱한 곳이
 없고 自己에 對하여 메시아 呼稱을 禁했으나 (Mk 8:30) 그 文脈의 前後

30. R. H. Mackintosh: The Doctrine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p. 19

31. G. B. Stevens: Theology of the N. T. T. and Clark, Edinburgh p. 53

32. R. Bultmann: Theology of the N. T. p. 26-27

33. G. Bornkamm Ibid p. 173

34. " Ibid p. 178

35. Bornkamm Ibid p. 178

36. W. Pannenberg Jesus-God and Man p. 327 R. H. Fuller: The Foundation of the N. T. Christology p. 37. 108-111

38. O. Cullmann: Christology of the N. T. p. 68-69

39. " " Ibid p. 8

40. D. M. Baillie God was in Christ p. 22 A. Schweitzer: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p. 330-397

關係는 오히려 強力한 肯定을 示唆하고 있다. (Mk, 8:31) 新約聖書의 이와같은 證言들을 오직 弟子들의 復活事件 以後의 信仰告白에만 結付시킴은 無理한 判斷이다.

예수의 言, 行 메시지, 그의 特殊使命, 十字架의 죽음等 全體의 면에서 肯定해야 할 理由가 더 强하다. 일찌기 C. Gore도 示唆했듯이⁽⁴¹⁾ 否定的 見解가 聖書의 全 證言들을 無視할 수 있는 反證을 갖지 않는限 우리는 肯定的 立場을 取함이 賢明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하나님과의 關係

예수의 하나님과의 人格的 關係는 特히 父性(Fatherhood)과 子性(Sonship)에서 그 特異性을 볼수 있다. Mackintosh는 神的 父性的 헬라의 概念은 宇宙的 概念(Cosmological conception)이고 倫理的概念(Ethical Conception)이 없으며 佛敎와 儒敎에서도 基督教에서와 같은 참된 人格的인 神的 父性을 찾아 볼수 없음을 指摘했다.⁽⁴²⁾ Judaism에서 Yahweh를 “아버지”로 呼稱했고 舊約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呼稱했으나 新約에서 예수와 하나님과의 人格的 關係는 父性和 子性으로 特異하게 表現되었다.⁽⁴³⁾ 共觀福音書에서는 예수 自身이 直接 “하나님의 아들”을 使用치 않았고 “아들”이라고만 했다. 特히 弟子들을 包含시켜서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 呼稱했다.⁽⁴⁴⁾ 第四福音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30회 “하나님의 아들”이 17회 使用되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The Father who sent me)가 6회 “나를 보낸者”(one who sent me)가 19회 使用되었다.⁽⁴⁵⁾

Stevens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아버지”와 特異한 關係 卽 倫理的 完全성과 關聯시키고 있다. 卽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倫理的 完全성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完全한 結合과 一致에서 보아야 하며 여기에 예수의 人格의 特異성과 唯一性이 있음을 主張했다.⁽⁴⁶⁾ Bultmann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낸者”에서 예수의 特殊한 使命과 關聯되어졌음을 強調한다.⁽⁴⁷⁾ Pannenberg와 Bornkamm은 “아버지” (Father)의 呼稱은 特殊한 親近性(Nearness with God)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며 Pannenberg의 境遇는 더욱 이 呼稱에서 “The Nearness to the Kingdom of God”의 意味까지 推定하고 있다.⁽⁴⁸⁾ Fuller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自

41. C. Gore: The Reconstruction of Belief p. 357—358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W. London, 1951, p. 357—358.

42. R. H. Mackintosh The Doctrine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p. 26

43. W. Pannenberg Jesus- God and Man p. 229

44. G. B. Stevens: Ibid p. 54

G. Bornkamm Ibid p. 128

45. R. Bultmann Ibid p. 34—35

46. G. B. Stevens: Ibid p. 64

47. R. Bultmann: Theology of the N. T. P. 35

48. W. Pannenberg Ibid p. 229—232

49. R. H. Fuller: Ibid p. 115

意識은 그의 Eschatological ministry와 結付되는 것으로 본다.⁽⁴⁹⁾ Cullmann은 예수 自身은 “하나님의 아들”보다 人子에 더 強한 自意識을 가진 것으로 보나 son of God과 son of man이 두가지 稱號는 結局하나로 結付되는 것이며 son of man은 son of God의 謙虛한 陳述(a statement of humiliation)이며 son of God은 son of man에 對한 尊大의 陳述(a statement of exaltation)임을 指摘했다. 그리고 人子の 境遇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自意識을 가질때 그의 人格과 그의 業蹟, 使命, 兩便에 함께 意識을 갖게 됨을 強調했다.⁽⁵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自意識을 갖었느냐에 對하여 異論이 있다해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全體的인 面으로 볼 때 疑心할 餘地가 없으며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自意識은 하나님과의 一致성과 그의 特殊한 使命과 關聯해서 理解해야 할 것이다.

③ 예수의 Message와 初代教會의 Kerygma

思想과 事業이 人格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境遇 이것을 아무리 強調해도 決코 過分하지 않다. 卽 예수의 Message와 Kerygma의 核心을 追求함은 新約의 그리스도像에 到達하는 途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message의 核心이 무엇인가를 論하고자 한다. 예수의 message를 終末論的으로 理解하고 그 中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은 新約學者들의 一致된 見解로 되었다.⁽⁵¹⁾ 그리고 終末論的 概念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意味는 現在의 歷史方向의 完全한 轉換을 뜻한다. 卽 낡은 世代(old aeon)가 終幕을 告하고 새 世代(new aeon)의 始作을 意味하는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새 人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實現되어진 것이다.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悔改하고 福音을 믿으라”⁽⁵³⁾ 이것은 예수의 舍命의 要約이요 그 核心이다.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自身에게서 始作되었고 自己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存在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行爲하였음을 確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自己 確證의 宣布이기도 하다. 이같은 事實을 다음의 聖句들이 傍證해 주고 있다. “너희 보는 바를 보는 눈이 복이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있느니라”⁽⁵⁴⁾ 그리고 그는 自己의 메세지에 對하여 決斷을 促求했으며 곧 自己 自身

50. O. Cullmann: Ibid p. 290

51. R. Bultmann: Theology of the N. T. p. 3-11 R. H. Fuller: Foundation of the N. T. Christology p. 102 -103 John Blight: Kingdom of God, abingdon press, New york

52. R. Bultmann Ibid p. 4-5

53. Mk. 1 : 15

54. Lk. 10 : 23 Mk, 2 : 18, Lk, 10 : 18

Lk 12 : 32 Lk, 17 : 21

에 對한 決斷을 要請했다(55) 우리는 이같은 그의 메세지와 要請背後에 그의 人格이 밑받침되어 있음을 記憶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메세지와 要請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現存에 直面케 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對面케 하는 것이다. 卽 그는 그 메세지와 그 行爲에서 하나님의 現存을 느끼게 했으며 하나님 나라 宣布와 決斷의 促求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現存에 直接對決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敎訓에 對한 그때의 一般的 反應이 普通宗敎的 敎師나 指導者들과는 判異한 特殊한 權威를 認定했었으며(56) 當代로서는 絶對的인 하나님의 權威였던 모세의 律法에 對하여 “모세의 律法은 어려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或은 “내가 律法의 完成者다”(57)라고 했다. 이같은 그의 메세지와 敎訓의 內的, 外的 權威는 하나님과의 特殊하고 唯一한 關係 卽 하나님과의 親近(Nearness to God), 하나님과의 一致(Unity with God)에서 理解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예수의 律法에 對한 發言은 當代的 他 Rabbi들의 statement에 對한 反對的 立場을 取했을 뿐만 아니고 自己 自身을 모세의 權威以上の 位置에 두웠음이 分明하다. 이와같이 모세의 權威以上の 自己權威를 主張한 예수의 權威는 곧 하나님 그 自身の 權威以外 다른 어떤 權威일 수도 없는 것이다.(58)

初代敎會의 Kerygma의 焦點은 예수의 十字架와 復活이 었다. 그의 十字架의 죽음은 그가 宣布한 하나님 나라의 終末論的 메세지와 直接的으로 結付된다. 卽 그의 十字架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人類를 救援하는 決定的 行爲이며 그리스도像의 絶頂이라 할수 있다.(59) 그리고 그의 復活事件은 初代敎會의 Kerygma의 中心 課題였다. 復活事件은 信仰을 가진 弟子들에게 주워진 하나님의 啓示的 行爲였으며 예수의 復活에서 하나님이 決定的으로 終末論的 行爲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Kerygma에서와 敎會歷史를 通하여서 같은 行爲를 繼續하시는 것이다.(60) 換言하면 그리스도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메세지 特히 그의 十字架의 事件과 復活事件에서 決定的으로 終末論的 行爲를 하셨고 使徒들의 Kerygma, 敎會歷史에서와 現實敎會안에서 같은 終末論的인 行爲를 繼續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成就시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新約聖書의 그리스도像은 統一성과 一致性을 가지며 何等의 矛盾이나 背馳됨이 없다. 一言으로 新約聖書의 그리스도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끝인다.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거나 사람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다. 어느 現代 自由主義神學者도 그리

55. R. Bultmann Ibid p.9. Mtt, 11 : 6

56. Mtt, 7 : 29

57. Mtt. 5 : 27, -28, 31-36, 38-44, 5 : 17

58. E. Käsemann: Probleme Neutestamentlicher arbeit in Deutschland, in Die Freiheit des Evangeliums und die Ordnung der gesellschaft (Munich: chr, Kaiser Verlag, 1952, p. 133-152 Pannenberg p:56

59. R.H. Fuller: Foundation of the N.T. christology p. 108-131

60. Fuller: lbid, p. 131, 143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認定하는데 新約聖書의 敎訓을 넘어 설수 없을 程度로 그 證言은 明確하다. 그리고 多樣하게 表現되어진 “참 하나님”에 對한 新約聖書의 證言도 그의 言行, 敎訓, 메세지, 특수 使命, 十字架와 復活等의 Kerygma, 이같은 總體的 見地에서 볼때 調和와 完全 結合, 一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그리스도理解는 언제나 그의 人格과 함께 그의 메세지, 使命 贖罪事業等의 綜合的인 見地에서 이루어져야만하는 것이다.

Ⅲ. 史的 考察

그리스도論이 神學的 課題로 登場하게 된것은 使徒時代를 經過한 훨씬 後의 일이다.⁽⁶¹⁾ 그러나 AD. 90年頃의 유대歷史家 Josephus가 남겨준 記錄中에 發見되는 “그리스도라 불리워진 예수의 형제 야고보”⁽⁶²⁾라고 한것은 그때 예수의 稱號가 “그리스도”로 一般化되어져 있었음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禮拜의 對象으로 삼게된 것은 初代教會에서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sia Minor에 한 젊은 總督이었던 Pliny가 當時 Rome 皇帝였던 Trajan (AD. 98-117)에게 보낸 報告書에 “기독교 교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을 習慣으로 하고 있다” “Christo Quasi Deo Carmen decere Saliti sunt”⁽⁶³⁾라고 한 것은 위와같은 事實을 證言해 주는 좋은 資料로 볼수 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呼稱한 第一人者는 Antioch의 Ignatius(AD 117)였으며⁽⁶⁴⁾ 그의 著書中에는 頻繁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呼稱했으며⁽⁶⁵⁾ O. Cullmann은 Ignatius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하나님의 呼稱을 使用한 것이 後代의 基督論爭의 方向이 新約聖書로부터 離脫하는 傾向을 나타내게 하는데 길을 터 준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⁶⁶⁾ 古代教會 敎父들은 大概 헬라 哲學派出身들로서 異敎徒들에게 그리스도를 理解시키는데 哲學的 用語“λογος”를 새 意味를 담아 使用했다. Heick는 古代教會에서 이 用語“λογος”를 選擇한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분 하나님안에 계신분, 或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생각했음을 指摘하고 萬一 그들이 人間 예수를 中心으로 生覺했으면 예수는 第二의 Socrates가 되었을 것이다”⁽⁶⁷⁾라고 한것은 正當한 見解일 것이다. 그러나 2世紀初부터 歷史的 예수

61. Otto W. Heick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p. 48

62. R. Bornkamm p. 27

63. O. W. Heick, Ibid p. 48

64. W. Pannenberg p. 33

65. O. W. Heick Ibid. p. 48

66. O. Cullmann: Christology of the N. T. p. 314

67. O. W. Heick Ibid, p. 60

의 人間性을 完全히 否定하고 神性만을 主張하는 Gnosticism이 盛行했으며 敎父들은 이것을 反駁하는데 盡力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呼稱했던 Ignatius도 聖父와 聖子 그리스도를 嚴格히 區別했던 것이다.⁽⁶⁸⁾ Justin도 Logos의 化肉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區別했으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完全啓示로 論한 Irenaeus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同一性을 가지면서도 그 사이에는 神秘的 深淵이 있음을 明白히 했다. 古代敎會에 있어서 가장 큰 危脅은 로마 權力의 迫害보다도 Gnosticism이었으며 萬一 그 當時에 이 危脅을 克服하지 못했다면 基督教은 異敎化되어졌을 것이 分明하다.⁽⁶⁹⁾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였던 古代敎會의 그리스도信仰을 가진 敎父들이 人間性을 全적으로 否定한 Gnosticism을 極力反駁하고 聖書的共同 信仰을 堅持했었다는 大 意義를 認定해야 할 것이다. 敎會史上 敎理論爭의 標本처럼 된 古代 數世紀 동안 繼續되었던 基督論爭은 結局 “참 사람”인 同時에 “참 하나님”이란 聖書的 敎訓에 기초한 그리스도信仰을 再確立하는데 이른 것이다. Heick는 Harnack의 말을 引用하여 “이 論爭은 福音의 헬라化의 두드러진 證據이며 兩性論의 敎理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單純한 福音과는 아무런 相關도 없다”라고 말했다.⁽⁷⁰⁾ 그러나 이 敎理論爭의 歷史的 敎訓은 그리스도의 人格의 重要性을 強調해 주었다는 點이며 그리스도의 人格에 對한 그릇된 敎理는 基督教을 그르치게 된다는 事實을 보여주었다. 卽 基督論爭에서 Arius가 勝利를 차지 하게 되었더라면 그리스도는 歷史的 한 人間 예수로만 머물게 되어 基督教은 Gnosticism의 경우와 같이 異質적으로 墮落되었을 것이지만 基督論爭의 絶頂에서 Athanacius의 主張에 힘입어 結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인 同時에 “참 하나님”이란 聖書的 共同信仰의 傳統을 再確立하게 되고⁽⁷¹⁾ 宗教改革者들의 그리스도信仰을 거쳐서 敎會의 傳統的 敎訓이 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古代敎會에서 또 다른 하나의 對照的인 그리스도理解를 볼 수 있다. 卽 Alexandria를 中心한 東方 헬라系 學派와 Rome와 Carthage를 中心한 西方 라틴系 學派의 그리스도理解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東方 헬라系 學派에서는 보다더 形而上學的 理論面에 置重하여 그리스도의 人格論을 中心으로 그 人格의 性質(The nature of the Person of Christ)에 集中되었으며 西方 라틴系 學派에서는 그와는 對照적으로 實際的인 面에서 그리스도의 業蹟을 中心으로 贖罪事業에 置重된 그리스도 理解였던 것이다.⁽⁷²⁾ 그러나 古代와 中世를 合쳐서 巨視的인 立場에서 觀察할 때 大體적으로 古代의 그리스도理解는 그리스도의 人格의 性質에 集中된 것이었으며 中

68. Cullmann, Ibid, p. 314

69. W. Hordern. 'a Layman's guide to protestant Theology. p. 17

W. Worker: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p. 53-63

70. O. W. Heick Ibid p. 187

71. The Creed of Nicea and Chalcedon을 參照

72.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W. 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Michigan p. 603

世는 보다 贖罪事業에 置重된 그리스도理解였다고 볼 수 있겠다. 中世의 代表的인 그리스도理解는 anselmus와 abelard의 對照的인 見解로 要約될 수 있다. 特히 Anselmus의 “하나님에 人間이 되었느냐?”(Cur Deus Homo)로 中世의 贖罪事業을 中心한 그리스도理解를 代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anselmus의 그리스도理解가 너머 客觀的 法理論에 置重된 缺陷을 지니고 있는데 對하여 Abelard의 하나님의 사랑을 中心한 主觀的 그리스도理解가 對立했으며 兩者의 綜合을 Berlard에게서 보게 된다.⁽⁷³⁾ Pannenberg는 基督論의 史的 觀察에서 두 가지 흐름을 指摘하고 있다. 卽 “Christology from above”와 “christology from below”가 그것이다. “christology from above”는 예수의 神性에서 始作되는 化肉 概念을 中心으로 하며 “christology from below”는 歷史的 人間 예수로부터 始作하여 神性에 이르는 길인데 여기서는 예수의 message와 그의 죽음등에서 始作하여 化肉概念에 到達하는 構造를 意味한다. 그는 “From above to below structure”를 古代 Ignatius, 2世紀의 Apologist, 4世紀 Alexandria의 代表로 Athanacius 등을 들고 現代에 까지 適用시키고 있다.⁽⁷⁴⁾ 그러나 이같은 對照的 그리스도像은 福音書에서 共觀福音書들은 “From below structure”로 第四福音書는 “From above structure”로 하나의 對照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福音書안에 이같은 對照的 그리스도像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古代教會의 그리스도像이 Heick가 要約했듯이⁽⁷⁵⁾ 神性中心의 그리스도像과 人性中心의 그리스도像 單性的 그리스도와 兩性的 그리스도 등으로 對立을 보여 주었으며 中世에서는 救贖事業中心의 그리스도 理解에서 義와 愛, 主觀主義와 客觀主義의 對立을 보았으며 現代에는 “歷史的 예수와 信仰告白의 그리스도” 理解로 對立的인 樣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 敎訓은 때로는 對立했지만 結局 綜合을 指向했다. 卽 古代와 中世를 거쳐서 宗教改革者들에게서 聖書의 그리스도理解가 一大綜合을 이룩했다. Luther의 思想은 그리스도 中心이었으며 Paul 以後 Luther 만큼 그리스도의 人格을 깊이 理解한 神學者는 찾기 어렵다.⁽⁷⁶⁾ Luther 나 Calvin 은 모두 聖書의 그리스도信仰의 基礎 위에 그들의 神學을 樹立했으며 化肉, 中保者, 啓示 등의 그리스도를 強調함에 있어서 이 兩者間에는 何等の 差別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Luther는 그의 中心思想인 義認(Justification by Faith)에 關聯된 “그리스도를 통한 信仰으로 말미암아”(Through Christ by faith)라는데 그의 特徵이 있으며 Calvin은 하나님의 攝理와 더 關聯된 그리스도의 信仰, 職務에 置重된 그리스도 理解라고 해서 좋을 것 같다.⁽⁷⁷⁾ 그러나 그리스도論史에 있어서 宗教改革者 Luther와 Calvin은 그리스도

73. O. W. Heick Ibid p. 308—309

74. W. Pannenberg Jesus-God and Man p. 33

75. O. W. Heick Ibid p. 187

76. H. R Mackintosh: Doctrine of the person of Christ p. 230

77. O. W. Heick Ibid p. 352, p. 430—431

理解에 있어서 하나의 Climax을 이루웠으며 一大 綜合을 成就했다고 볼 수 있다.

IV. 現代의 그리스도 理解

1. 自由主義者들의 그리스도 理解

現代 精神의 特徵은 理性中心, 自由, 批判精神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現代 精神이 우리 課題인 그리스도 理解에 끼친 影響을 Heick는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表現했다. “그리스도論에서 이 合理主義는 그리스도中心이 아니었고 예수 中心이 었다. 神一人(God-man)의 그리스도와 理想의 人物 예수와의 差異가 論議되기 始作했고 예수는 信仰의 對象이 아닌 信仰의 主體로 되었다.”(78) 이같은 傾向의 顯著한 現象으로 Biblical Criticism과 歷史의 探究에 依한 “예수傳 研究”였으며 D. F. Strauss, F. C. Baur 등이 그 代表的 人物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中心이 아닌 歷史의 人物 예수 中心으로 信仰의 冊이 아닌 一般書籍으로 聖書를 取扱했을때 信仰의 對象인 그리스도를 喪失했을 뿐만아니고 歷史의 예수까지 잃고 말았다.

그들의 歷史的 예수 探求의 資料는 福音書였고 그 福音書에는 그들이 찾는 純粹한 歷史의 예수는 없었고 結局 “神話로서의 예수”를 찾는 結果가 되었다. 이 樣狀을 Heick는 “福音書의 神話的 性格을 主張한 Strauss로부터 始作하여 예수 自身을 한 神話로 보게 되었다”(79)라고 表現했다. 여기에 正面으로 反旗를 든것은 M. Kähler였으며 그의 標語라고 할 수 있는 말은 “The real Christ is the preached Christ” 었다.(80) Kähler는 “單純한 歷史의 人間 예수”에 反對하여 예수의 참된 人格은 오직 使徒的 說教에서 發見되며 참된 歷史의 예수는 예수의 人格的 影響에서 찾아야 함을 主張했다.(81) 여기서 信仰告白的 그리스도, 全聖書의 그리스도(the Whole Biblical Christ)가 참된 그리스도 理解라는 主張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歷史的 예수”에 實際적으로 終止符를 찍게 한 것은 A. Schweitzer 라고 볼 수 있다. 그는 Reimarus 에서 Wrede까지 約 200年間의 歷史의 예수 研究를 整理 分析, 處理함으로서 歷史的 한Epoch를 지었다. 이것을 Bornkamm은 諷刺 섞인 말로 다음과 같이 表現했다. “Albert Schweitzer, in his classic work,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has erected its memorial but at the same time has delivered its funeral oration”(82) 우리는 Schweitzer의 終末論的 그리스도 理解를 그

78. O. Heick Ibid p. 132

79. " Ibid p. 198

80. W. Pannenberg Ibid p. 22

81. " Ibid p. 23

82.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p. 13

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다. “水中植物이 물속에서 成長하고 있을때에만 아름답다. 그러나 일단 물을 떠나면 곧 시들고 그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와 같이 歷史的 예수도 終末論의 土壤으로부터 離脫될 때는 꼭 같은 運命에 이르게 된다. 예수안에 머물러 있는 永遠한 것은 歷史的 知識으로부터 獨立된 것이며 아직도 世界內에서 役事하고 있는 그의 精神과의 結合에 서만 理解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예수의 精神을 갖는 그만큼 우리는 예수에 對한 참된 知識을 갖게 된다.”⁽⁸³⁾

“歷史的 예수” 研究者들과 같은 極左派와는 다른 또 하나의 自由主義 神學者들의 그리스도 理解를 우리는 Schleiermacher, Ritschl, Hermann, Harnack 等에게서 볼 수 있다. Schleiermacher는 기독교를 그리스도 中心으로 生覺했고 그리스도의 特異性を 認定했다는 點에서 當代로서는 注目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 理解가 神意識이 完全한 분, 우리에게 神意識을 줄 수 있는 분이였다. Heick도 指摘했듯이 이같은 예수는 宗教的 理想人物에 不過한 表現이라는 評을 免할 수 없다.⁽⁸⁴⁾ 그의 後繼者라고 할 수 있는 Ritschl의 神學思想이 그리스도 中心이며 그리스도의 人格과 事業을 綜合的으로 理解했다고 하겠으나 結局 倫理的으로 完全하고 하나님의 뜻과 一致한 그리스도 理解를 더 넘지 못했다. 그의 弟子 Hermann과 Harnack 等의 思想에서 그리스도 中心으로 더 深化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領域을 開拓하는 데까지는 到達하지 못했으며 참된 意味에서 그리스도 中心의 神學思想의 새로운 面貌는 다음 實存主義 神學者들에게서 期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實存主義 神學者들의 그리스도 理解

Barth, Brunner, Bultmann, Tillich 等의 思想基調에는 實存主義의 色彩가 濃厚하며 Barth가 自認하고 있듯이 그들의 思想에는 Kierkegaard의 影響이 큰바 있다.⁽⁸⁵⁾ Kierkegaard의 實存主義 思想이 Hegel의 合理主義를 克服하려 했듯이 實存主義 神學者들은 “歷史的 예수”는 信仰告白의 그리스도로 克服했으며 Schleiermacher와 그 後繼者들의 自由主義 그리스도 理解는 實存論的 解釋의 그리스도 理解로 克服했다고 볼 수 있다. Barth의 그리스도 理解는 Schleiermacher의 그것과 判異하며 그의 思想에서는 그리스도를 重要視한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맞나는 것을 意味한다. Barth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完全啓示라고 말할때 啓示의 하나님은 永永遠遠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歷史안에 侵入해온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行爲 하였으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인 것이다. Pannenberg도 Barth의 이같은 그리스도 中心의 神

83. A. Schweitzer: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p. 401

84. O. W. Heick: Ibid p. 178

85. Karl Barth: Epistles to the Romans Oxford University Press. p. 10

學的 特徵을指摘하면서 그의 貢獻을 다음과 같이 크게 評價했다.

The identity of the essence of Jesus with God claimed in the concept of God's self-revelation through Jesus has been worked out especially by Karl Barth and has been the basis of his Theology. The demonstration of the connection of Jesus divinity with the concept of revelation constitutes one of Barth's greatest theological contributions⁽⁸⁶⁾. 우리는 聖書의 그리스도理解가 宗教改革者들 Luther와 Calvin에게서 絶頂을 보았다고 하면 Barth와 Brunner같은 實存主義 神學者들 或은 하나님의 말씀의 神學者들에게서 宗教改革者들의 그리스도理解가 再解釋되어 졌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現代의 그리스도論에 있어서 가장 特色있고 關心을 갖게 한 것은 Bultmann의 非神話化된 그리스도理解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말하는 非神話化된 그리스도理解의 要點을 말하고 그가 우리의 課題에 어떤 功過를 갖는지를 보고자한다. 그에 依하면 新約聖書의 메시지가 神話的으로 되어 있으며 그 宇宙觀이 現代科學으로는 받아 드릴수 없는 神話的 陳述일 뿐만이 아니고 Kerygma의 焦點인 救贖事件의 大部分의 陳述이 神話的 用語로서 表現되어 졌으며 그리스도自身도 神話的 衣裳을 입고 있는바 그의 先在, 化肉, 메시아, 復活, 再臨等은 默示의 神話가 아니면 Gnostic 神話들의 影響에서 表現되어진 것들이라고 한다.⁽⁸⁷⁾ 그러므로 그는 오늘 바른 福音理解, 바른 그리스도理解를 爲해서는 非神話化가 不可避하다고 主張한다. Bultmann의 確信에 依하면 그리스도 事件의 Kerygma에 對한 바른 信仰의 應答이 있는 곳에는 낡은 自我에서 새 自我로 解放되는 終末論者 事件이 생겨 지므로⁽⁸⁸⁾ Kerygma의 眞意에 바른 信仰의 應答을 갖도록하기 爲해서 非神話化함은 오늘 우리들의 義務라고 主張한다.⁽⁸⁹⁾ 그는 非神話化 過程에서 “歷史의 예수” 研究者들과 같은 極 左派들이 神話を 除去하려다가 하나님의 終末論的 行爲로서의 Kerygma의 意味까지 喪失해 버렸던 愚를 犯하지 않고 참 福音理解의 障害만을 除去하기 爲하여 하나님의 終末論的 行爲로서의 그리스도事件들을 神話的이 아닌 다른 말로서 陳述되어져야만 한다는데 그의 所謂 實存論的 解釋學이 있는 것이다.⁽⁹⁰⁾ 그 한 例를 들면 예수의 十字架는 客觀的으로 이리났던 過去의 하나의 歷史的 事件이라기보다는 現在 우리 自身들의 存在안에 實際로 이리난 事件 卽 그리스도人 各自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十字架의 죽음에 同參하므로 自己의 事實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⁹¹⁾

86. W. Pannenberg Ibid. p. 130

87. Kerygma and Myth: p. 1-2

88. " " p. 19-21

89. " " p. 9-16 The Task before us 참조.

90. " " p. 19-21 The Life of Faith 참조.

91. Kerygma, and Myth p. 31-33, 35-38

Bultmann은 復活도 十字架의 救援의 樣狀에 對한 解釋으로 보며 十字架의 救贖의 意味를 宣布하는 表現이었다고 생각한다. (92) 歷史家의 立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弟子들의 復活 信仰이 그 以上の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Bultmann이 오늘 聖書神學에서 가장 要請되는 切實한 問題를 진지하게 提示해 주었다는데 그의 貢獻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特히 歷史的 예수의 研究者 左派를 克服하고 새로운 길을 摸索한데 意義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Bultmann 亦是 예수의 歷史에 對하여 過分하게 否定的 態度를 取함과 同時に 信仰告白의 그리스도理解에만 置重하는데 하나의 問題性을 그의 神學과 方法안에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ultmann의 非神活化된 그리스도理解에 對한 反應은 直刻的으로 贊反으로 神學史上 稀有의 激論을 보게 되었다. (92) 그에 對한 反應中 하나의 例를 同情的인 右翼便에선 그의 後進, Thielike의 경우를 들고져 한다. (94) Thielike는 Bultmann의 그리스도理解에 있어서 그리스도 事件의 位置問題를 다음과 같이 提起시켰다. 그리스도事件이 A. D. 1—30에 일어났는가? 主日禮拜說教時에 信仰의 應答을 할때 일어나는가? 或은 말씀의 說教와 信仰의 應答의 結合에 서인가? Bultmann의 立場에서는 그리스도事件이 A. D. 1—30에 일어난 것은 認定하나 客觀的인 歷史的 事實만으로 現在 나의 救援의 事件이되어 질수 없다는 것이다. (95) 그러나 歷史的 事實로서의 十字架事件 그 自體가 無視 或은 無關心되고 Kerygma와 信仰의 應答만이 現實 나의 救贖事件에 重要視된다면 이것은 本末의 轉倒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客觀的인 歷史的 事實로서의 十字架의 事件이 있으므로 해서 Kerygma가 可能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終末論的인 事件으로 받아 드리는 信仰의 應答도 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Bultmann이 復活事件을 十字架의 救贖의 意味를 宣布하는 神話的 方法으로 보고 十字架事件과 復活事件을 하나로 取扱할 때(96) 꼭같은 批判이 加해져서 마땅하리라고 본다. 卽 그가 復活事件을 弟子들이 十字架의 偉大한 事件을 救贖事件으로 받아 드릴때 생겨난 復活信仰이며 結局 예수의 復活事件이 救贖事件으로 宣布되어질 때 그 “Kerygma에서 復活됨”(Raised into the Kerygma)을 의미하게 된다. (97) 그러나 新約의 陳述은 예수의 復活이 十字架事件을 넘어서 그 以上으로 일어났던 事件임을 證言하고 있다. 特히 復活 事件이 Kerygma 以前에 일어난 事件임을 明白하다. 하나님의 行爲로서의 예수의 復活이 있으므로 해서 비로소 Kerygma속에 그것이 實際로드

92. Kerygma and Myth p. 38—43

93. " " Vol. I, II 非神治化를 中心한 論爭들이 收錄되어져 있음.

94. " " p. 77—78.

95. " " p. 19—21, p. 35—38

96. " " p. 39

97. R. H. Fuller: The N. T. in current study, p. 16

러오게 될 것이다. Kerygma의 宣布者 Paul은 일적 復活의 事實이 없으면 Kerygma도 헛것이
고 우리의 應答하는 信仰도 헛것이다⁽⁹⁸⁾라고 喝破했던 것이다. Paul의 이같은 證言은 그리스
도의 復活이 Kerygma나 信仰에서 造作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行爲로서 그리스도의 復
활이 있으므로해서 Kerygma와 信仰이 可能했음을 確證한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
理解는 歷史的 事實과 Kerygma와 信仰의 應答이 結合되어져서 成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V. 結 論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서만 하나님 自身에 關하여 이야기 할수 있을 뿐이며 神
論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論은 結合되어져야 하며 여기에 기독교론과 神學의 目的이 있는 것이
다”⁽⁹⁹⁾라는 Pannenberg의 말은 올바른 그리스도理解의 核心點을 밝혀준 말이다. 그리스도 理
解에 있어서 바른 姿勢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發見하기 爲해서 예수 自身에게서 出發
하는 것이다”⁽¹⁰⁰⁾ 라는 確信에 서는 것이라고 본다.

本論에서 우리는 多樣한 그리스도理解를 보았으며 위의 基本的인 姿勢에서 올바른 그리스
도理解를 爲한 重要한 敎訓을 찾는데 우리의 課題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
리스도”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逆說的인 存在로서의 그리스도를 理解함에 있어서 何等의 問
題點도 남김이 없이 完全無缺한 解決을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理解의 長久한 歷
史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新約聖書의 敎訓과 證言을 土臺로해서 不斷히 새 意味를 探求해
왔으며 많은 變遷과 複雜한 內容을 가지면서도 언제나 新約聖書의 빛 아래서 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理解를 向해서 前進해 왔다는 事實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表示해 볼수 있을 것이
다. 卽 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Jesus is christ, the son of God)聖書的 共
同信仰(Biblical Common Faith) ② 참 사람과 참 하나님(True man and True God)古代敎會
③ 예수는 救贖者인 하나님(Jesus is the savior and God)中世 anselmus, ④ 그리스도안에 감
추워 계신 하나님(Incognito)Luther ⑤ 啓示의 하나님은 하나님 自身이다 (Revealed God is
God Himself)Barth, 그리스도안에 계신 하나님 (God was in christ)D. M. Baillie,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This man is God)Pannenberg. 그리고 本論에서 우리가 考察한 바에 依하면 올
바른 그리스도理解는 恒常 예수 그리스도의 歷史的 特異한 人格에 基盤을 두는 同時에 그의
교훈, 使命, 메시지, 業績等의 完全 結合을 갖어야 한다. 그리고 歷史的 예수와 信仰告白의

98. I Corinthians 15: 14, 17

99. W. Pannenberg Jesus-God and Man p. 19-20

100. " " " p. 21

그리스도, 過去의 예수와 그의 Community의 Kerygma의 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信仰으로 맞나는 그리스도는 決코 分離될 수 없고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歷史的 예수가 無視된 그리스도理解는 그릇된 것이며 信仰告白의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理解는 無意味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理解는 恒常 하나님의 救贖史에 立脚해야만 한다. Cullmann은 “基督論은 救贖史이고 救贖史는 곧 基督論이다”(101) 라고 한 것은 適切한 表現이다.

Bornkamm은 基督論들이 失敗했을 境遇에 그 主要한 理由를 各自들이 自己 自身들의 예수의 모습들을 提示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自己의 時代精神을 插入시켰기 때문이 었다(102) 라고 말했다. 古代教會에서 形而上學的 그리스도의 人格中心의 論爭들 (The nature of the person of Christ)은 그때의 Hellenism의 強한 時代精神의 反映으로 볼수 있으며 所謂 “歷史的 예수” 運動은 近世의 合理主義 歷史主義의 時代 精神이 지나치게 作用한 두드러진 하나의 例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現代의 Bultmann의 非神話化된 그리스도理解는 現代 實存主義思想과 現代 科學精神의 影響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時代精神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再解釋해야 할 責任을 지고 있음이 事實인 同時에 우리의 그리스도理解가 一方的인 것이 되지 않기 爲해서는 恒常 綜合的인 立場을 堅持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A. Schweitzer는 “그리스도는 저 湖畔으로부터 未知者로서 우리를 向해 걸어 오면서 나를 따르라! 고 명한다. …… 그는 自己와의 Fellowship에서 갖게될 苦難, 갈등, 努力속에서 形言할수 없는 神秘로서 自身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며…… 그가 果然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의 體驗에서 알 수 있게 될것이다”(103) 라고 했다. 恒常 새롭고 보다더 깊은 그리스도 理解를 探索해 나가야 할 責任을 成就함에 있어서 冒險과 苦難과 많은 땀의 努力이 要請됨을 示唆해주는 말인 同時에 이것은 決코 다 함이 없는 作業임을 뜻하는 것이다. 2,000年前의 歷史的 예수의 人格에 근거서서 至今까지의 그리스도理解의 많은 遺産들을 간직하는 同時에 오늘 여가 現存하는 그리스도와의 人格的 만남에서 새로운 領域을 開拓하는데 우리의 바른 進路가 있는 것이다.

101. O.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 T. p. 326

102.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p. 13.

103. A. Schweitzer,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p. 403